



 <p>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p> <p>http://www.emerics.org/</p> <p>2018. 07. 05. 인도·남아시아</p>	<p>「이슈&트렌드」</p> <p>인도,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 배경 및 전망</p> <p>작성 이정미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p>
--	--

- 6월 20일 인도재무부는 미국산 29개의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함.
-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아몬드, 호두, 사과 등 농산품과 압연강재 등 철강제품, 진단 시약 등 29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을 결정함.
 -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임.
- 29개 품목에 대한 대미관세 인상 조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기 위함.¹⁾
- 인도는 6월 14일 WTO에 미국산 3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보하였으며, 인도재무부는 30개 품목 가운데 배기량 80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제외한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
 - 인도의 보복관세 규모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액에 상당하는 2억 4,100만 달러임.

표1. 대미수입관세 인상 일부 품목의 수입액과 관세율

(만 달러, %)

	대미수입액	관세 인상 전	관세 인상 후
껍질있는 아몬드	58,063	kg당 100루피	kg당 120루피
껍질제거 아몬드	2,876	kg당 35루피	kg당 42루피
호두	4,329	30	120
신선 사과	9,657	50	75
인산	9,618	10	20
진단시약	12,287	10	20
주조틀 용 바인더	8,058	10	17.5
병아리콩	2,968	30	70
렌틸콩	4,450	30	70

자료: Business line (2018.6.21). US apples, almonds to be costlier, but India's tariff strike spares Harley bikes. the telegraph(2018.6.22.). Tit-for-tat tariff against US ready.

표2. 미국의 국별 상품수지 적자

(십억 달러)

	국가	상품수지적자
1	중국	375.2
2	멕시코	71.1
3	일본	68.8
4	독일	64.3
5	베트남	38.3
6	아일랜드	38.1
7	이탈리아	31.6
8	말레이시아	24.6
9	네덜란드	24.5
10	인도	22.9
11	한국	22.9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Census

1)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터키(2억 6,700만 달러) EU(28억 달러) 등 또한 대미보복관세 부과를 결정

- 미국의 대인도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규모는 각각 7억 9,500만 달러, 4억 2,400만 달러로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해 인도로부터 2억 4,100만 달러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양국의 무역불균형 규모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 간 무역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나, 미국은 무역상대국의 보복조치에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 규모는 229억 달러로 중국의 6% 수준이며, 제약을 제외한 인도의 대미 주요 상품 수출 품목은 섬유, 진주, 광물 등으로 미국 제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임.
 - 미국과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는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하면서도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인도는 일반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보 직후 적용하나 미국산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에 시간차를 둬으로써 미국과 협상의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인도는 미국에 50억 달러 규모의(1,000대)의 항공기와 40억 달러 규모의 석유와 가스 구입 의사를 밝힘.
 - 그러나 미국은 인도의 보복관세 발표이후 7월 6일 개최 예정이었던 양국 간 국무·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 대해 일방적 연기를 통보함.
 - 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 될 경우, 인도는 IT와 제약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음.²⁾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인도의 대외협력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도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부상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인도와 중국의 통상 협력 강화로 이어져 비우호적이었던 인도-중국 관계 전환의 계기가 됨³⁾.
 - 블룸버그 통신 등 내외신에서는 중국의 인도산 쌀, 항암제 등의 일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인도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8500개의 수입품 관세 인하 결정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평가함.
 - 최근 인도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상승이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6월 28일 달러당 환율은 사상 최고수준인 68.9 루피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환율과 미국산 제품의 가격 인상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
 - 한편 미국발 무역분쟁 악화로 대부분의 신흥국의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낮은 대외의존도를 가진 인도의 SENSEX주가지수는 안정적으로 나타남.⁴⁾ **EMERICs**

2) Live mint(2018.6.25). The sitting ducks in a trade war.

3) 이정미(2018.4.6.). 인도-중국 제11차 공동경제그룹(JEG) 개최. 동향세미나, 이정미(2018.5.4.).인도-중국 비공식정상회담 개최 배경 및 전망. 동향세미나 참고

4) WSJ(2018.6.26). One Asian Stock Market is Resisting the Trade War Selloff.

그림1. 인도 환율 추이



자료: CEIC

그림2. 아시아국의 주가지수 추이



자료: WSJ(2018.6.26). One Asian Stock Market is Resisting the Trade War Selloff.